예정처 '모두의 창업' 브레이크… "내년 계획 적정수준 조정"

내년 총 4411억 4000만원 편성
예정처 "올해 지원 기업 모니터링 후 성과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이재명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모창 프로젝트)를 놓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년 사업 계획 규모를 조정해야한다며 사실상 브레이크를 걸었다.

올해 처음 선보인 모창 프로젝트의 성과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2027년에 4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다.

10일 중기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모창 프로젝트는 성과 기반 보육 지원 1669억원,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1500억원 등 총 4411억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1·2차 프로젝트 참여자 지원 예산(604억1600만원)과 내년 3·4차 관련 예산(3807억2400만원)이 섞여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0월 20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서울에서 열린 '2차 모두의 창업 출범식'에서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중기부

중기부는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3·4차 두 차례에 걸쳐 1만명씩 총 2만명을 선발해 사업화자금, 창업코칭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정처는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7년에는 2026년 지원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후속지원에 집중하고 해당 프로젝트 추진 성과 등을 분석한 뒤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8년도 계획안을 편성하는 등 내년 계획안 규모를 조정하고 향후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처음 시작한 모창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본격적인 사업 성과 평가가 쉽지 않은데 내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2026년 관련 사업 예산은 총 1550억원으로, 내년엔 3배 가까이 늘려 잡았다.

중기부가 올해 5월부터 진행한 모창 프로젝트에는 일반트랙과 로컬트랙을 합쳐 총 6만2944명이 신청했다. 또 9월부터 시작한 2차에는 두 트랙에 1차때보다 3만명 가까이 많은 총 9만2838명이 접수했다.

1차 권역별 오디션과 트랙별 'TOP 100' 그리고 최종 우승자는 오는 12월에 결정한다. 2차는 지역 예선과 전국 오디션 등까지 진행하면 내년 1월에나 마무리될 예정이다.

예정처는 "(모창 프로젝트) 내년도 계획안은 올해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 코칭 및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받은 총 1만5000명 가운데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거나 창업 후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 보육기관·멘토별 지원 창업자의 단계(오디션)별 통과율 등 사업 성과 전반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예비창업을 지원하는 성격인데다 투자가 아닌 소진성 경비 지출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년도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예비창업 지원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린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재정 투입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1차 신청자 가운데 2라운드 진출자를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화 자금(최대 1000만원), AI 솔루션 활용 등을 지원한 결과 20개 기업이 29억원 가량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또 458건의 특허 출원과 192건이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발판을 마련했다.

예정처는 "올해 프로젝트의 현재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신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내년도 계획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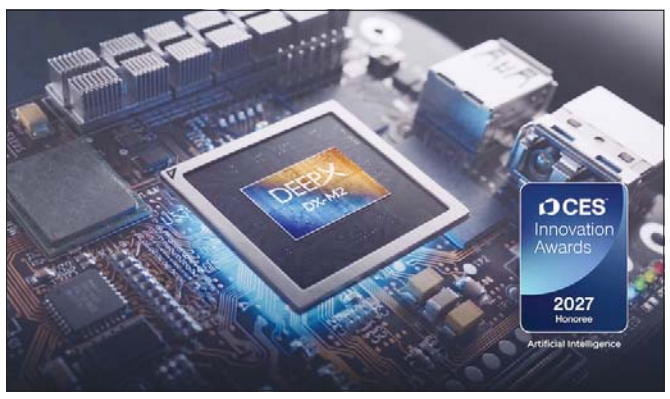
삼성·LG, AI·전장 등 잇단 혁신상… 초격차 기술 빛났다

CES 2027

삼성 공정 적용 딥엑스 'DX-M2'
삼성SDI 배터리 솔루션 등 수상
LG전자, 세계 첫 투명·무선 TV 수상

삼성그룹과 LG그룹 계열사들이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7'에서 잇따라 혁신상을 수상하며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인공지능(AI)과 디스플레이, 전장,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작을 배출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는 내년 1월 열리는 CES 2027 개막을 앞두고 혁신상 수상 제품과 기술을 발표했다. CES 혁신상은 기술력과 디자인, 혁신성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상이다.



딥엑스 'DX-M2', CES 2027 AI 부문 혁신상. /딥엑스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2나노 공정을 적용한 차세대 AI 반도체 'DX-M2'가 인공지능 부문 혁신상에 선정됐다. 국내 AI 반도체 기업 딥엑스가 개발한 이 제품은 약 5와트(W)의 저전력으로 로봇과 산업용 기기에서 생성형 AI를 직접 구동하도록 설계됐다. 딥엑스는 2028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SDI는 AI 데이터센터용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솔루션 'SDI U8A3-UPS'로 엔터프라이즈 테크 부문 혁신상을 수상했다. 3년 연속 수상으로, 리튬망간산화물(LMO) 소재의 각형 배터리 셀을 적용해 기존 제품보다 공간 효율을 33% 높였다. 글로벌 안전 인증기관 UL솔루션즈의 옥내 대형 화재 시험에서도 모든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



CES 2027 최고 혁신상을 받은 세계 최초 투명·무선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 /LG전자

LG전자는 세계 최초 투명·무선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로 아트 테크 부문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LG 올레드 TV는 2023년부터 5년 연속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투명 올레드 패널과 무선 영상·음향 전송 기술을 결합해 블랙 스크린과 투명 스크린 모드를 전환할 수 있다. 초대형 무선 월페이퍼 TV와 게이밍 모니터, AI 생활가전 등도 혁신상을 받았다.

LG이노텍은 차세대 차량용 조명 모듈 '넥슬라이드 C+'로 3년 연속 혁신상을 수상했다. 넥슬라이드 C+는 보는 각도에 따라 서로 다른 3차원(3D) 이미지를 구현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두께를 3mm 이하로 줄여 차량 후미등과 전면 그릴, 실내 무드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사용 후 배터리 진단 솔루션 '리.펄스(Re.Pulse)'로 첨단 모빌리티 부문 혁신상을 받았다. 2년 연속 소프트웨어 기술로 수상한 것으로, AI를 활용해 배터리 건강상태와 잔존 성능을 분석한다. 기존 7시간 이상 걸리던 진단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했으며, 배터리 내부 셀 단위까지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중기부, '글로벌 육성' 기업 수출 56%↑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사업' 성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사업' 참여사의 수출이 1년새 56% 넘게 늘어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10일 중기부에 따르면 관련 육성사업에 올해 선정된 100개사 가운데 수출 실적이 있는 92개사의 수출액은 올해 1~9월 706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452만 달러)보다 56.3% 늘었다.

수출 대상국도 44개국에서 75개국으로 확대됐다. 기존 동아시아, 미국, 중국 중심에서 러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 31개국에 신규 진출하며 수출 시장이 다변화됐다.

올해 새로 시작한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사업'은 소비재 분야에서 수출 잠재력이 높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 강화 교육, 수출형 제품 개발 및 사업화(최대 1억원), 해외 소비재 박람회 참가 등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 사업이다.



중기부 전경.

지난해 수출 실적이 없었던 6개사는 첫 수출에 성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첫 수출과 신규 시장 진출을 이끄는 데도 기여했다.

중기부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국장은 "K-소비재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과 호응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혁신 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中企 헬스케어 기술 美 진출 지원

美 멤피스 보훈의료센터와 '맞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우리나라 헬스케어 분야 중소벤처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추가로 지원한다.

10일 중진공에 따르면 최근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미국 보훈부 산하 멤피스 보훈의료센터와 국내 헬스케어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진출 및 기술협력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미국 현지 의료 수요 파악과 의료진·연구자와의 교류를 통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혁신 의료기술의 연구·임상 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멤피스 보훈의료센터는 미국 보훈부 산하 의료기관으로, 재향군인을 대상으로 전문 진료와 재활, 정신건강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의학·임상·재활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의료인력 교육을 수행하고 있어 국내 헬스케어 기업과 기술교류 및 협력 가능성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재향군인 건강 관련 의료 수요·연구 우선순위·혁신 의료기술에 관한 정보 공유 ▲의료센터 연구자·임상의와 국내 중소벤처기업 간 기술교류 및 네트워크 촉진 ▲현지 연구·임상 협력 및 기술검증 기회 발굴 ▲세미나·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 공동 사업 모색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지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국내 기업의 기술을 발굴하고 기업과 의료 전문가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진공 박장혁 글로벌성장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헬스케어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현지 연구·임상 협력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며 현지 거점과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기술협력부터 바이어 발굴까지 미국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렌탈 할인 등 혜택 풍성 블랙프라이데이 특별전

코웨이가 오는 26일까지 공식 자사몰 코웨이닷컴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0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에선 인기 제품 렌탈료 할인과 함께 네이버페이 포인트 지급, 대규모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혜택을 마련했다.

먼저 더매너 비데 플러스, 스퀘어핏 공기청정기 등 비데·공기청정기 전 제품과 아이콘 정수기 3를 비롯한 정수기 2종은 약정 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렌탈료를 월 1만원으로 할인한다. 특히 정수기는 최근 6개월간 코웨이 렌탈·멤버십 이용 이력이 없는 신규 고객이라면 할인 기간이 3개월 더 늘어나 최대 15개월 동안 월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비렉스 매트리스와 제로 음식물처리기 등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렌탈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